

이마트-대한항공, '항공 마일리지 제휴' 론칭



이마트와 대한항공이 13일 '항공 마일리지 제휴 서비스'(사)를 선보였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회원

은 전국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7만 원 이상 결제 시 3000원당 1마일을 적립 받을 수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도 가능하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및 앱에서 사전에 1400마일을 사용해 할인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최종 결제 금액에서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7만 원 이상 결제 시 1일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2월 28일까지 이마트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사용한 고객 중 총 659명을 추첨해 항공권 및 마일리지 증정 이벤트를 연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대한항공과의 항공 마일리지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을 늘릴 수 있다"며 "향후 고객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마케팅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T맵 인포테인먼트' 구글 OS 불보차에 적용



티맵모빌리티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되는 불보자동차 전 모델에 T맵 인포테인먼트를 탑재(사진)한다고 13일 밝혔다. T맵 인포테인먼트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T맵 오토'를 비롯해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 음악 플랫폼 '플로' 등의 서비스로 구성됐다.

새 서비스도 추가된다. 티맵모빌리티가 구축 중인 T맵 인포테인먼트 전용 앱스토어를 통해 비디오 스트리밍·오디오북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가차 충전·주차·음식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내 결제 솔루션(In-car Payment) 도입을 비롯해 자율주행용 지도(HD맵) 탑재, 개인 맞춤형 장소 추천 및 길안내 등의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T맵 인포테인먼트는 최근 출시된 XC60, S90, V90를 시작으로 향후 출시될 불보 차량에 순차적으로 탑재된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임플란트, 체계적 계획·꼼꼼한 시술 중요

기존 틀니보다 안정적...정기적인 점검·정결유지해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 몸에서 섭취를 책임지는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충치나 치주 질환, 사고 등으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 인공치아를 고려하게 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브리지 등의 보철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틀니 착용보다 고정식 보철 치료를 원한다면 임플란트를 숙식하게 된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것으로, 티타늄 소재의 인공치근을 잇몸에 식립한 후 단단히 고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대주와 보철을 연결하게 된다. 인접한 자연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상실된 치아만 수복하며 씹는 힘이 자연 치아와 흡사하고, 기존 틀니보다 안정적이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심미적 기능이 더해져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보편적인 치료로 자리매김했다. 임플란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과거에 비해 경제적 부담도 덜해 시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성인에서 보철 임플란트 시술 건수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고난이도의 치료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으로 꼼꼼하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립 후에는 구강 청결 유지에 힘쓰고,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상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거나 주변 치아의 충치 등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구도도담치과 전강진 원장

인재론에 힘 실는 CJ 이재현 회장



CJ가 연공서열을 가리지 않는 인재 발탁과 '자기주도형 몰입' 환경 제공 등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2023 중기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왼쪽)과 경기 일산 CJ라이브시티에 마련한 거점 오피스 'CJ 워크 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 사진제공 | CJ

인재가 오고 싶은 CJ로...근무 시공간 자율성 UP

거점 오피스 'CJ 워크 온' 도입 임직원이 스스로 근무환경 설계 6개 임원직급, '경영리더'로 통합 다양한 기회와 파격적 보상 제공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해 11월 '2023 중기비전'에서 강조한 '인재론'에 힘을 실고 있다. 나이, 연차, 직급을 가리지 않는 인재 발탁과 임직원 스스로 일하는 시·공간, 경력까지 설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몰입' 환경 제공이 핵심이다.

당시 이 회장은 "다양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타 기업에서 볼 수 없던 파격적 보상을 하고, 함께 성장할 일터로 만들겠다"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인재다. 인재들이 와서 일하고 싶어하고, 함께 성장하는 CJ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율적 근무공간, 거점 오피스 도입

그 출발점으로 새해 임직원들의 자율적 근무공간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거

점 오피스 'CJ 워크 온(Work On)'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을 선택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개별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시간 선택 근무제(하루 4시간 필수근무시간 외 주중 근무시간 자유조정)와 더불어 업무 시공간 '자기 주도 설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우선 서울 용산구(CJ올리브네트웍스, CJ CGV), 서울 중구(CJ제일제당센티), 경기 일산(CJ라이브시티)에 160여 석 규모로 시행했다. 향후 강남 등 수도권 핵심지역을 비롯해 제주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기본형 워크스테이션, 프라이빗한 몰입 좌석, 카페 같은 오픈 라운지 등을 조성했다. 회의실, 화상회의 시스템 등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도 제공한다. CJ 임직원이면 누구나 간단한 사전 예약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근무시간 유연성 강화와 더불어 근무 공간 역시 사무실·재택·거

점 오피스 등으로 탄력적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자율성에 기반해 스스로 업무 환경을 설계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개인과 기업 모두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향후 근무 공간과 시간의 유연 근무를 넘어, 직무 특성을 고려해 요일별 근무 시간을 직원 각자가 설계하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성과중심 조직문화...인재 조기 발탁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임원직급을 통합하는 인사직제개편을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부터 사장, 총괄부사장, 부사장, 부사장대우, 상무, 상무대우로 나뉘어 있는 6개 임원 직급을 '경영리더' 1개 단일 직급으로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경영리더의 처우, 보상, 직책은 역할과 성과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성과를 내고 맡은 업무범위가 넓은 임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더 빨리 주요보직에 오르게 된다.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부문장이나 최고경영자(CEO)로 조기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역량 있는 인재의 조기발탁 및 경영자 육성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이번 임원 직급 단일화를 필두로, 향후 일반직원들의 직급체계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계열사별 상황에 맞춰 추진한다. 회사 측은 "미래성장의 주역이 될 2030 MZ세대 구성원들이 원하는 공정한 성장기회를 구현하고, 이들의 커리어를 디자인해 최대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다양한 기회를 주되 그 과정에서 책임과 관리는 확실히 하고, 결과를 공정히 평가해 성과를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또 인재 발탁 기준을 능력과 의지로 바꾸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임직원이 소속 계열사와 직무에 제한 없이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잡 포스팅'과 '프로젝트·TF 공모제', 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들에게 직급과 관계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리더 공모제' 등이 대표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역대급 흥행... '1경' 넘는 자금 몰려

(1조 원의 1만배)

18~19일 청약...공모가 30만원 유력
상장 이후 시총 2위에 오를 가능성도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진행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기관 주문액 1경 원(1조 원의 1만 배)을 넘어서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수요예측은 1500대 1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에 배정된 최소 공모주식수는 2337만5000주이며, 공모가 상당(30만 원)에 주문이 몰렸기 때문에 1500대 1의 경쟁률을 단순 계산하면 기관이 제시한 금액은 최소 1경518조 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공모가는 희망밴드(27만 5000~30만 원)의 상당인 30만 원으로 결정 될 것이 유력하다. 공모 금액은 12조 7500억 원으로 지난 2010년 삼성생명(4조 8000억 원) 이후 역대 최대 공모 규모를 기록할 예정이다.

공모가가 30만 원으로 결정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70조2000억 원으로, 상장 직후 삼성전자(468조 6279억 원)와 SK하이닉스(93조 9123억 원)에 이은 코스피 시총 3위에 오르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예상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시가총액은 100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 추가 추이에 따라 코스피 시총 2위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19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진행한 후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 개인투자자는 대표 주관사인 KB증권, 공동 주관사인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미래셋증권,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중 한 곳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궁극의 플래그십' 제네시스 G90, 이달 중 고객인도 시동

장재훈 "글로벌 2만대 판매 목표" 이지클로즈·무드큐레이터 등 탑재



G90 미디어 이벤트에 참석한 제네시스 장재훈 사장. 사진제공 | 제네시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수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에서 플래그십 세단 G90의 미디어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달 중 고객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G90은 제네시스가 세계 시장에 자신 있게 선보이는 궁극의 플래그십 세단이자,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연평균 2만대 판매를 목표로 한국 시장은 물론 북미,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네시스는 특히 초대형 럭셔리 세단의 연간 글로벌 수요가 23만대 수준

로 정체를 것으로 예측하면서, G90이 이 시장에서 2023년 8.6% 점유율을 기

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신형 제네시스 G90은 승차부터 주행과 주차까지 새로운 자동화 경험을 선사하는 이지 클로즈, 직접식 그림 감지 시스템, 광각 카메라 기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뱅앤올룹슨 프리미어 3D 사운드 시스템(23스피커)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구현하는 바추얼 메뉴(가상공간), 한 번의 조작으로 실내 조명·음악·향기 등을 최적화해 승객의 기분 전환을 돕는 무드 큐레이터 등 신규 감성 사양이 다양하게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판매 가격은 세단 8957만 원, 통틀베이스 1억 6557만 원(개별소비세 3.5% 기준)부터 시작된다.